



2월 24일 룸비니 동산 연못에서 열린 '세계평화염원 촛불 법회' 모습.



한국인 최초로 선묵해자스님이 코이랄라 네팔수상에게 평화 훈장을 받고있다.

부처님 진신, 세계평화 염원 안고 귀향 '감격'

매월 5천여 불자가 한꺼번에 전국의 산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농촌 직거래 장터 등으로 화제를 뿌려온 '108산사 순례회'가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네팔을 방문했다. 기도와 봉사의 영역을 해외로 확대한 것이다.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에서 부처님 진신 사리를 모시고 법회를 봉행하는 것이다.

또 네팔의 수도 카투만두에서 개교를 앞둔 선해학교 현판식 참석도 방문 이유 중 하나다. 지난 2006년 9월 첫 순례 이래 '108산사 순례회'가 해외에서 행사를 여는 것은 처음이라 출발 전부터 국내는 물론 네팔 현지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전세기로 7시간에 걸쳐 인천에서 네팔로 날아간 300여 108 순례기도회원들은 첫날(23일) 카투만두에 도착하자마자 선해 학교로 달려갔다. 네팔에 초등 교육시설이 부족한 것을 안 선묵해자 스님이 108명의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보금자리다.

현판식에서 말하리 조시 선해학교 초대 교장(前 네팔 교육부장관·72)은 "네팔의

미래가 바로 이 어린이들의 질 좋은 교육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 학교 개원 은 네팔로서는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네팔부터 108순례 기도회는 매일 300여 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개원식에 이어 크라운 플라자 솔더 호텔 만찬장에서는 네팔 정부의 환영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그라자 프라사드 코이랄라 네팔 수상(87)은 축사를 통해 "현재 네팔은 과거 갈등의 시기를 지나 결연히 앞으로 나아가려는 평화의 시점에 와 있다"며 "이번 108산사 순례기도회원들의 방문은 네팔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자비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인사말에 이어 코이랄라 수상은 108산사 기도순례회 회장인 선묵해자 스님(도선사 주지)에게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평화 훈장을 수여했다. 이날 공식 만찬 행사에는 수바스 네팔 국회의장을 비롯해 총기 남립포제, 사하나프라단 외무부장관 등 20여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또한 이날 행사 장면

은 네팔 국영TV 뉴스와 신문에 보도되는 등 다수 현지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다. 다음날(24일) 새벽 카투만두에서 버스로 10여 시간을 달려 룸비니로 이동한 순례단

이르렀을 때 갑자기 산기를 느껴 출산을 하고 몸을 씻었다는 연못이었다. 순례 회원들은 깨끗이 정리해 놓은 사각형 연못에 1m 간격으로 촛불을 세워놓고 반야심경 등을

자 스님의 집전으로 법회를 봉행했다. 해자 스님은 "이번 진신 사리는 지난 1월 쿠시나가르 열반당 주지로 부터 기증받은 것"이라며 "생전에 고향인 이곳 룸비니를 항상 그리워 하셨던 부처님 진신을 탄생지로 모신 것은 부처님 열반 이후 세계불교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는 말을 현지인들에게 들었다"고 자부심을 피력했다.

이온 법회 후에는 룸비니동산 근처 특설 무대에서 네팔불교도연합회와 지역 주민 본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네팔 합동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가 끝난 뒤 순례기도회원들은 도시락과 양말 등 5천개를 현지인들에게 나눠줘 호응을 받았다.

이외에도 108산사 순례기도회는 네팔 제 2의 도시 포가라에서 살산 및 방생 법회를, 네팔 최고의 사원인 카투만두 스와암부사원에서 합동 법회를 진행하는 등 다수의 법회를 봉행했다. 모두가 한국과 네팔을 비롯해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것이 이 법회들의 주제였다.

108산사 순례기도회, 네팔 룸비니서 세계평화기원 법회 열어

수상 등 네팔 정부 순례기도회 환영의 물결 넘쳐 108 네팔 어린이 위한 초등교육 선해학교 현판식 코이랄라 네팔수상 선묵해자 스님에게 평화 훈장

은 한국적인 대성석가사에 여장을 풀 뒤 밤 9시부터 '세계평화염원 촛불법회'를 룸비니 동산에서 봉행했다. 룸비니 성지는 넓은 구역을 공원화해 정리해놓았는데 주변에는 세계 불교국가에서 세운 30여 사원들이 있다. 법회 장소는 마야부인이 룸비니동산에

독경하며 세계평화를 간절히 발원했다. 이번 순례의 하이라이트는 셋째날(25일) 부처님 진신 이온 법회였다. 붉은색 건물을 지어 당대 건축의 전형을 보존하고 있는 부처님 탄생지에 인도 쿠시나가르(열반지)에서 이온된 부처님 진신 사리를 모셔 놓고 해

이번 순례에서는 참석자들의 눈물을 자아낸 가슴 뭉클한 행사도 있었다. 지난 2월 15일 총남 마곡사에서 열린 '108산사 순례기도회 농촌여행 결혼 이민자 108인연 맺기 행사'서 인연을 맺은 네팔의 두만사리파(35·예씨가 양아버지인 순례기도회원 이연수 보살(70)과 함께 네팔 친정 부모를 상봉하는 장면이었다. 2004년 공주로 시집은 이후 고향 방문은 처음이라는 두만사리파씨는 친정어머니를 만나자마자 "한국에서 인연 맺은 양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편안하게 잘 지낸다고 울지 말라"고 말해 행사장 분위기를 잠시 숙연하게 했다.

이 광경을 지켜 본 선묵해자 스님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늘 참 보람을 느낀다"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운 이들에게 인연을 통해 삶의 희망을 주는 108인연 맺기는 불교의 실천행을 가장 잘 행하는 일로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팔/글·사진=김주일 기자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 병풍
(관세음보살 부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 35 × 50cm
(대) 42 × 65cm
60 × 20cm

오마니반 메츨축자
60 × 20cm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역주, 포대화상항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전주
크기: 8mm × 10mm × 12mm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항로
(대) 26 × 16 × 16cm 155,000원
*원안가 125,000원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74 승영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들 온열복대

원칙적인 '열침'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들 온열복대

복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물인 금강약들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차료기 **금강약들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들 육각불이** 80°C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작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칙적인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작용하고 편안하게 없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정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 결림 고열,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배가 낫거나 손 발이차신분 ◆오심전,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리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예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